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11월 소식

지난 9월 6일에 이곳에서 17년동안 사역을 하시던 장인어른이신 김옥열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지난 4월에 의식을 잃으신 후 한달동안 중환자로 계시다가 의식이 돌아오시고 차츰 회복이 되셨었는데, 다시 2차 3차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전에 늘 말씀하시기를 키르기즈스탄에서 평생 사역하시다가 이곳에 묻히겠다고 하셔서 비쉬켄 근교의 소클룩이라는 공동묘지에 안장을 했습니다. 82세의 연세에도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셨는데 갑작스런 병환으로 돌아가셔서 많은 한국사역자들과 교민들, 그리고 관계가 있는 정부 기관과 현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동안 하시고 남기신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처음 오셔서 한인교회를 세우신 이후 2010년 은퇴하시면서 후임자에게 넘겨주시기까지 연합신학교 이사장도 역임하셨고, NGO 기관(Good Partner)을 통해서 고려인들을 위한 사역, 현지 고아들을 위한 사역, 난민들을 위한 사역, 키르기즈 새마을운동을 위한 협력사역 등 다양한 사역으로 한국인 최초로 키르기즈 정부에서 공로 메달(GAMSUMO:감수모 위원회)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4개월동안 교박 병원에서 집에서, 다시 병원에서의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도 나누곤 하셨는데 갑작스런 죽음에 우리의 삶과 사역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시며 많은 격려와 위로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신약 주석 번역 작업 신약 주석 번역 작업은 이제 13권 중에 7번째 사도행전이 지난해에 출간된 이후, 옥중서신과 로마서의 감수작업이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로빈교수와 쟈이쉬 선생이 함께 오랜 수고를 해 주셔서 감수작업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편집과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지인 사역자 무르자트 부부가 세밀하게 수정을 하고 있는데, 작업이 끝나면 수정본을 받아서 370페이지에 달하는 로마서를 먼저 스캔하고 키르기즈어로 타이핑을 하여 편집 사역자에게로 넘기게 됩니다. 편집 사역자는 현재 사정상 본국인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스캔파일을 보내면 그곳에서 도서 편집 프로그램으로 완성하여 키르기즈에 있는 인쇄소에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로빈 교수는 이제 1~2년 후에 이 주석 시리즈가 마무리되면 은퇴하고 본국인 호주로 돌아갈 계획에 있습니다. 귀한 주석번역&출간 사역의 진행을 위해 모든 협력자들,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어 교실(드림 아카데미) 지난 9월에 장인어른이 소천하시고 몇주동안 경황이 없었지만, 9월 10일에 예정대로 한글학교의 한국어 강의를 시작되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네 사람의 한국어 선생님과 한 명의 현지 선생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츠나라 선생님은 지난 11월 3일에 출산으로 현재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초급 2개반, 중급 3개반, 고급 2개반 모두 7개 반으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초급에서 중급으로, 중급에서 고급반으로 수준이 올라간 학생들도 많지만, 어떤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수업이라 일주일에 3회씩 출석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열심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오전반 수업이 끝난후 바로 드림아카데미로 오면 1시정도에 도착해서 2시에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저희 선생님들과 강의실 정리와 수업준비도 함께 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업전에 차도 마시며,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 하는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관계뿐 아니라 말하고 듣는 능력도 많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억니은부터 배우던 친구들이 조금씩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어 가는 것이 기특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름동안 캠프와 여러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영적 열매를 거두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귀한 한국어 사역에 함께 하시는 한국 선생님들을 위해,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 소망의 집에 있는 노숙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숙인이라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겨울철에만 임시거처로 지내다가 봄철에 임시거처는 문을 닫고 거주하던 사람들은 다시 거리로 나가곤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구청에서 허가해준 임시거처를 철거하지 않고, 1년내내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10월말부터 3월초까지 저녁식사 한끼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식비를 도와 주고 있는데 소망의 집에 거주하는 이들 중에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러 가기도 하고, 빈병, 페트병을 수집하여 생활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거처가 아직 한칸이라서 대략의 칸막이로 남녀를 구별해서 지내었는데, 옆칸에 공간이 있어서 지난 가을에 창을 바꾸고 문짝을 달고, 석탄을 댈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을 도와주어서 조금씩 수리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설이 미약하지만 올 겨울에는 남녀를 우선 분리해서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샤 목사가 저희가 조금씩 돕는 비용으로 철문과 창문, 그리고 침대를 하나씩 제작해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집에 거주하는 이들 중 1~2명에게 용접 기술도 가르쳐주면서 함께 침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배우면 독립해서 용접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기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곳 시설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거처도 없는 노숙인들 가운데 이곳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이곳에서 엄격하게 술을 끊고 생활해야 하는 생활 규칙에 동의하면 한쪽편에 자리를 만들어 주어 소망의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중독상태라서 결심과 동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이곳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샤 목사와 앞으로의 계획은 이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공동체에 적응하도록 돕고, 생활이 규모있게 되어가는 상황에 따라 숙소의 배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기, 목공, 용접 등 직업훈련이 되어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직 요원하지만 한걸음씩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집 사역자 사샤와 20여명의 이곳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족 스케치 장인어른의 4개월간의 병원에서의 사투를 함께 하면서 아내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장인어른 곁에서 그동안 못다한 아버지와 딸과의 시간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사위로서 저도 장인어른과의 한국에서 ivf 사역으로 동역한 시간이 10년 이상이었고, 이곳 중앙아시아에서 17년동안 가까이에서 함께 사역과 삶을 나누며 지내온 시간들이 꿈만 같습니다. 갑작스런 병환으로 의식없는 상태로 4주, 의식이 돌아오셨지만 대소변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이후 3개월간 지속되는 동안 마치 갓태어난 아이가 자라나는 것 같은 의식의 회복, 육체의 기능의 회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딸과 사위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힘드셨을텐데, 온전한 의식의 회복이 안되신 가운데 하시던 사역을 위임하시고 삶을 마무리 하시며 죽음을 받아들이신 장인어른의 삶을 되돌아보며 모든 상황과 일들이 아버지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장모님은 현재 한국에서 아들집에 머물며 겨울을 지내시고 봄에 들어오실 계획입니다. 향후 거취에 대해 계속 고민중에 계십니다. 평생을 남편 내조로 살아오신 장모님에게 갑작스런 사별이 실감못할 정도의 충격이지만 아버지의 크신 위로하심으로 여생을 보내시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혜브론, 김엘레나 드림